

주간 해외에너지정책 동향

Issue 45 / 2010.11.19

□ 러시아-EU, 에너지규제 워킹그룹 설립

- EU가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에너지 규제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러시아와 EU가 워킹그룹을 설립할 것이라고 Gazprom의 Alexander Medvedev 부사장이 11월 16일 발표함.
- 연구 대상이 되는 에너지 규제는 '09년에 입법화된 EU 법률로서, 천연가스 판매업과 수송업의 분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또한 동 법률은 천연가스 인프라에 대하여 제3자 기업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함. 동 법률은 '11년에 발효될 예정이며, 2년간의 적응기간을 허용함.
- 러시아는 동 법률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
- Medvedev 부사장은 North Stream의 일부이며 발트해를 관통하여 유럽으로 연결되는 Opal 가스관을 언급하면서, 본 가스관에 대한 제3자 접근을 허용한다면 독일에 대한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이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함.
- 또한 푸틴 총리도 EU의 신규 에너지 규제는 인프라의 사용을 제한하며 천연가스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언급함.

(Ria Novosti, 2010.11.16)

NEWS

- 러시아-EU, 에너지규제 워킹그룹 설립
- 일본, 탄소배출권거래제 최종안 발표
- 일본, 중국의 희토류 광물자원 수출 개선에 기대
- 일본, 볼리비아의 리튬 추출실험 참가
- 일본, 아프가니스탄의 관개·소규모 수력발전 정비 무상 지원
- 일본, 국제협력은행의 용자 대상 확대로 세계 인프라 수주 목표
- 중국, 쩌난市 천연가스 비축기지 건설 계획
- 호주, Shell의 부유식 LNG 설비 승인
- 캐나다 온타리오, 전기세 인하 계획 발표
- 인도-미국, 콜린에너지 기술 협정 체결
- 파키스탄-미국, 풍력 발전 프로젝트 협정
- 아제르바이잔, '11년에 Shah 가스 판매계약 체결
- EU 회원국, 밴 자동차의 CO₂ 배출량 규제 완화
- EU 집행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관한 안전기준 제안
- EU 집행위, '20년 새로운 에너지 전략 발표
- EU, 불가리아 South Stream 협정 수정 요구
- Gazprom, 쿠바 해상 유전개발 참여
- 러시아-인도-중국, 에너지안보 협력에 합의
- 러시아-불가리아, 원자력 발전소 건설비용에 의견 불일치
- Gazprom 마케팅 사업부, 사업 확장으로 고용 확대
- 영국, 풍력 발전소와 복합가스화력발전소(CCGT) 승인
- BP, 브라질 바이오연료 산업 투자에 관심
- BP,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로 인해 가스전 폐쇄
- 덴마크 Vestas, 미국시장 점유율 확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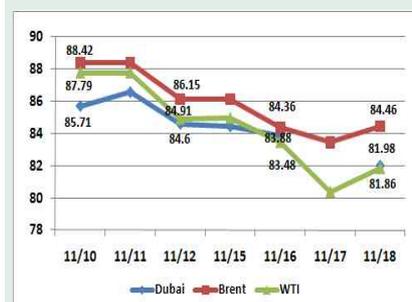
ANALYSIS

- 네덜란드, 스마트미터의 도입 가속
- 영국, CO₂ 포집·저장 기술(CCS) 지원 지속

REPORT

- 석유 공급과잉 상황 속에 석유시장 불확실성 증가

Oil Prices (Spot, \$/bbl)





ASIA, AMERICA & MIDDLE EAST

□ 일본, 탄소배출권거래제 최종안 발표

- 일본 환경성 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의 최종안을 발표하였음.
 - 최종안에 따르면 ETS는 '13년 4월부터 시작될 예정임.
 -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무가 부여된 전력회사들에 이를 고려한 우대혜택이 제공될 예정임.
 - 의무적 ETS 하에서 대규모 회사들은 배출권을 할당받게 될 예정임. 지정된 양을 초과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들은 타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배출량을 감축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야기됨.
- 지난 8월 말에 일본 환경성 장관은 대규모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에 배출권 할당 허용량에 대한 옵션을 포함한 ETS 초안을 발표한 바 있음.
 - 배출량의 절대적인 상한제 설정, 에너지 효율에 기초한 상한제 부과 등의 방안이 제안되었음.
 - 최소한 ETS 시행초기에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배출권 할당량을 무상분배하는 방안은 최종안에서 채택되었음.
- 상기 ETS안에 대해 여전히 일본 환경성 장관과 경제산업성 장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
 - 경제산업성 장관은 산업체 및 기업들에 자신들의 자발적 감축 목표를 바탕으로 배출권을 할당할 것을 주장함.

(Point Carbon, 2010.11.16)

□ 일본, 중국의 희토류 광물자원 수출 개선에 기대

- 오하타 아키히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11월 16일 내각 회의 후에 가



진 기자 회견에서, 중국의 對일본 희토류 광물자원 수출에 대해 현재 조금씩 개선의 조짐이 보인다는 견해를 밝힘.

- 희토류 광물자원 관련 기업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이번 주 내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오하타 경제산업성 장관은 지난 11월 13일, 요코하마 시내에서 장핑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회담을 가짐.
 - 오하타 장관의 조기해결 요청에 대해 장주임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언급함. 이에 오하타 장관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겠다고 응대함.

(Sankeibiz.jp, 2010.11.16)

□ 일본, 볼리비아의 리튬 추출실험 참가

- JOGMEC은 남미 볼리비아의 리튬 자원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11월 10일 발표함.
 - 일본측에서는 스미토모상사, 미쓰비시상사가 참가함.
 - 볼리비아측이 Uyuni 소금 호수 주변에 건설 중인 연구시설을 거점으로 실험 장비를 도입하고 기술자도 파견하여 작업을 추진할 예정임.
- 희소 금속 리튬은 전기자동차 축전지의 원료로서 수요의 급속한 확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과의 사이에서 개발권 획득 경쟁을 벌이고 있음.
 - Uyuni 소금 호수는 전세계 리튬 매장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곳으로 일본측은 이번 합의를 발판으로 볼리비아의 지분 확보를 추구할 방침임.

(ecool.jp, 2010.11.10)

□ 일본, 아프가니스탄의 관개·소규모 수력발전 정비 무상 지원

- 일본 정부는 11월 10일 아프가니스탄의 Kabul 및 Bamiyan에서 관개 관련 시설의 건설과 소규모 수력발전 설비의 정비에 필요한 자금으로



1.356십억 엔의 무상 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오랜 내전의 영향으로 주요 산업인 농업 인프라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어 인구의 1/3가량이 식량 원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70%의 국민들은 영양 부족 상태에 처해 있음.
- 이러한 가운데 농업 생산 확대,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수자원의 적절한 관리 및 개발을 통해 농작지의 관개 시설 정비와 소규모 수력발전 시설 정비에 의한 전력 공급이 중요시 되고 있음.
- 동 계획은 Kabul 및 Bamiyan의 하천 유역 관개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소규모 수력발전 설비를 정비하는 한편,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대하여 수자원 관리시설 유지 및 보수에 관한 기술훈련을 실시할 예정임.

(ecool.jp, 2010.11.11)

□ 일본, 국제협력은행의 용자대상 확대로 인프라 수출 추구

- 일본 정부는 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의 선진국 투융자 업무를 확대하는 정책금융공고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령을 11월 16일 의결하고, 11월 19일에 시행할 예정임.
 - 대상 사업을 기존의 원자력,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및 전기, 정보망 설비 등으로 확대함.
 - JBIC의 선진국 용자는 지금까지 원자력발전과 고속철도의 2개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음. 세계에서 인프라 수주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상하수도 및 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 정보통신 네트워크 정비 등의 사업분야를 추가하여 엔高의 장점도 살리고, 민관 협력의 대형 개발사업 확보를 도모함.
- 일본 정부는 지난 6월에 결정된 신성장 전략에서 대규모 인프라의 정비와 운영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인프라 수출을 중점 과제로 삼고 있음.
 - 지난 10월 8일 각의 결정한 엔高 디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급종합경제대책에도 인프라 수출 지원을 위한 JBIC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음.



- JBIC의 활용 방안은 지난 10월에 JBIC가 금융 시장에서 달러를 공급하기 힘든 대형 사업의 경우, 외자 준비를 관리하는 외환자금특별회계(外國爲替資金特別會計)로 부터 JBIC에게 용자하는 구조를 정비하고, JBIC의 연간 사업 규모에 해당하는 1.5조 엔 규모의 용자 범위를 설정함.

(産経News, 2010.11.16)

□ 중국, 濟南市 천연가스 비축기지 건설 계획

- 중국 濟南市는 겨울철 천연가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1년에 천연가스 비축기지 착공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힘.
- 濟南市의 도시가스 가격은 현재 '07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천연가스 가격은 1m³당 2.40위안, 코크스로 가스 가격은 1.50 위안임.
- 그러나 '07년 이후 가스를 공급하는 PetroChina와 Sinopec은 천연가스 구매가격이 수차례 인상되었으며 새로운 가스관 부설 및 파이프라인 유지, 보수에 비용이 소요되어 현재의 민생용 도시가스 가격으로는 도시가스회사의 경영난이 심화되어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워짐.
- 濟南市에서는 매년 겨울 천연가스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中國石化新聞, 2010.11.12)

□ 호주, Shell의 부유식 LNG 설비 승인

- 호주 정부는 Shell의 획기적인 부유식 LNG 설비에 대한 환경 승인을 했다고 발표함.
- 이 부유식 LNG 설비의 건설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사용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해양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 아래 진행될 예정임.
- 완공 후 선적을 위한 가스 냉각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임.
- 총 \$5십억의 비용이 소요될 예정이며 길이 480m, 폭 75m 그리고 무게는 약 6백만 톤이 될 것으로 추정됨.
- 새롭고 비교적 환경오염이 덜 한 에너지 자원인 LNG는 호주의 새로운 주요 산업이 될 전망이다.



- 부유식 LNG 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오염을 줄일 것으로 기대됨.

(The Economic Times, 2010.11.12)

□ 캐나다 온타리오, 전기세 인하 계획 발표

- 온타리오 정부는 가정용 전기세를 인하할 계획을 발표함.
- 전기세 인하에 대한 정부의 세부적인 정책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세 가지 방법이 거론됨.
 - 첫 번째 방법으로 정부가 전기세율을 낮추거나 동결할 수 있음.
 - 두 번째 방법으로 채무 원리금 상환 비용을 면제할 수 있음.
 - 세 번째 방법으로 Harmonized Sales Tax(HST)를 폐지할 수 있음. (한 달에 800kWh의 전력을 소비하는 일반 소비자의 경우 본 세금으로 연간 \$156.48을 지불하고 있음.)
- 전기세 인하 방안 중 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HST의 폐지가 선호되고 있음.

(The Ottawa Citizen, 2010.11.16)

□ 인도-미국, 클린에너지 기술 협정 체결

- 인도는 전력의 절반 이상을 석탄과 원자력을 사용하여 생산하고 있음.
- 인도는 에너지 수요와 공급 사이의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한 대체 에너지 원을 찾고 있음.
- 미국은 '12년 3월까지 인도에서 62천MW 전력 생산을 목표로 태양광, 바이오 연료, 그리고 셰일 가스 부문에서 인도와 협력하기로 함.
 - 두 나라는 Clean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re를 설립하여 향후 5년간 매년 \$5백만을 합작 투자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번 협정은 클린에너지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우선 집중적으로 개발될 분야는 태양광 에너지, 차세대 바이오연료 그



리고 건물 에너지 효율이 될 전망이다.

- 두 나라는 셰일 가스 부문의 협력을 통하여 미국이 인도 전역의 자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며, 인도의 연구원들이 미국에서 자원 평가에 대한 연수를 받을 예정임.

(Daily News and Analysis, 2010.11.8)

□ 파키스탄-미국, 풍력 발전 프로젝트 협정

- 파키스탄은 미국 전력 회사인 AES Corporation과 함께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함.
 - 이 풍력 발전소는 2년 동안의 공사 기간을 거쳐 파키스탄의 Gharo Corridor 지방에 건설될 예정임.
 - 프로젝트에는 총 \$375백만의 비용이 소요되고, 150MW의 발전 능력을 보유할 예정임.
 - 발전능력 150MW의 동 발전소는 파키스탄의 600천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며, 수입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켜 파키스탄은 연간 \$45백만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Business Recorder, 2010.11.15)

□ 아제르바이잔, '11년에 Shah 가스 판매계약 체결

- 아제르바이잔의 국영 에너지기업 Socar의 Rovnaq Abdullayev 사장은 제 2차 Shah Deniz 가스 콘덴세이트 사업에 참여하는 국제적인 기업들과 '11년 중반에 천연가스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11월 13일 발표함.
 - 1996년부터 카스피해에서 진행되고 있는 본 사업에 BP, Statoil, Total, Lukoil 등이 참여해 왔음.
 - Socar는 현재 터키와 함께 제2차 사업기간 동안에 천연가스 환적과 연간 6십억m³의 천연가스를 판매하는 계약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Abdullayev 사장이 언급함.
 - Socar는 EU의 기업들과도 추가로 연간 10십억m³의 천연가스 판매에 대



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 제2차 천연가스 개발사업은 '16년 말 혹은 '17년 초에 시작될 예정이며 예상 생산량은 연간 16십억m³임.
- 제1차 개발사업 기간 동안, 연간 총 8.6십억m³의 천연가스 생산량 중 터키는 연간 6.6십억m³의 천연가스를 구매하였고 나머지 생산량은 그루지야와 아제르바이잔에서 구매하였음.
- 아제르바이잔에서 터키로 연결되는 가스관은 연간 20십억m³의 수송 용량을 보유함.

(MarketWatch, 2010.11.13)

EUROPE & AFRICA

□ EU 회원국, 밴 자동차의 CO₂ 배출량 규제 완화

- EU 회원국들은 밴 및 상업용 경차(Light Commercial Vehicles, LCV)의 CO₂ 배출량을 '20년까지 155g/km로 제한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음.
 - ※ '07년 밴 및 상업용 경차의 CO₂ 배출량 평균 수준은 203g/km였음.
- EU 집행위원회는 밴의 배출량을 135g/km로, 유럽의회의 환경위원회는 140g/km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제안보다 훨씬 완화된 것임.
- EU 회원국은 또한 175g/km로 제한하는 중간목표 달성기간을 '16년에서 '17년으로 1년 더 연장하는 데 합의하였음.
- 그리고 EU 회원국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CO₂ 배출 허용한도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경우 예상했던 벌금인 120유로/g을 95유로/g으로 완화하자는 유럽의회의 제안을 지지하였음.
- 법안 타결을 위해 EU 이사회, 유럽의회, EU 집행위원회의 3자간 회담이 11월 16일부터 시작될 예정임.

(ENDS Europe, 2010.11.12)



□ EU 집행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관한 안전기준 제안

- EU 집행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안전기준을 11월 9일에 제안하였음.
 - Günther Oettinger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원자력발전에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간에 핵오염으로부터 모든 EU 회원국들,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안전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EU 집행위는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최종처리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관한 안전기준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그리고 구속력있고 법적인 지침을 제정하여 모든 회원국들에 적용시킬 예정임.
- 지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준으로 제정될 예정임.
 - 회원국은 지침 도입 4년 내에 건설계획, 처리시설 관리 등 각국의 프로그램을 작성해야만 함.
 - 각국의 프로그램은 EU 집행위원회에 통보되어야만 함. EU 집행위원회가 각국의 계획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음.
 - 핵폐기물을 EU 역외 국가로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 IAEA에 의해 작성된 안전기준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음.

(Europa Press Room, 2010.11.9)

□ EU 집행위, '20년 새로운 에너지 전략 발표

- EU 집행위원회는 경쟁적이며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위한 새로운 전략인 “Energy 2020”을 11월 10일에 발표하였음. “Energy 2020”은 향후 10년 동안의 에너지 전략에 있어 우선사항들을 정하였음.
 - 에너지 절약: 특히 건물과 수송 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을 강조함.
 - 건물 부문에서는 Revolving Funds와 같은 혁신적 금융상품 및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물성능 혁신 프로젝트를 촉진시킬 계획임. 그리고 빌딩 소유주와 세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분할 문제를 다룰 예정임.



- EU 온실가스 배출량의 1/5을 차지하는 수송 부문에서는 모든 차량에 대한 에너지 효율 기준을 도입할 예정임.
- 산업 부문에서는 에너지효율인증서가 에너지 절약 기술에 투자하는 회사들의 인센티브가 될 가능성이 큼.
- 새로운 에너지 효율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11년 봄에 발표될 예정임.
- 통합적 에너지인프라를 갖춘 범유럽 에너지시장 구축: 에너지시장에 대한 장기적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 '20~'50년 EU 국가간 전력 및 가스 공급망 구축에 관한 청사진을 '11년 중기에 발표될 예정임. 동 계획은 "EU 2050 Roadmap"을 토대로 구상될 계획임.
-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EU 회원국들의 합일된 목소리 내기: EU 집행위원회는 EU 에너지 시장 통합을 위해 Energy Community Treaty를 강화할 것을 제안함. 그리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방안으로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조함.
- 에너지 기술혁신 선도: 지능망 및 전력저장과 관련한 신기술, 제2세대 바이오연료 연구, 도시지역의 에너지 절약 장려를 위한 "Smart Cities" 파트너쉽 구축에 있어 유럽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임.
- 투명한 요금부과 원칙을 제안함.
- EU 집행위원회는 상기 발표된 우선사항들을 토대로 향후 18개월 내에 구체적인 이니셔티브 및 제안서를 입법 건의할 예정임. 또한 상기 사항은 '11년 2월 4일에 열리는 제1차 EU Summit on Energy의 아젠다로 설정될 예정임.

(Europa Press Room, 2010.11.9)

□ EU, 불가리아 South Stream 협정 수정 요구

- EU는 불가리아가 러시아와 체결한 South Stream 가스관 협정에 대하여 제3자 접근을 허용하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함.
- EU 집행위의 Marlene Holzner 에너지 담당 대변인은 양국 간의 협정



문에 제3자 접근에 대한 조향이 명시되기를 바란다고 11월 1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언급함.

- EU 집행위는 지난 4월 불가리아 정부에 서한을 보내 민간 천연가스 판매 기업들을 동 사업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하였음.
- EU는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
- 푸틴 러시아 총리가 불가리아를 방문한 11월 13일, Gazprom은 Bulgarian Energy Holding과 협정을 맺고 유럽으로 연결되는 South Stream의 불가리아 구간을 양측이 50:50의 지분비율로 공동운영하는데 합의함.
 - South Stream 가스관의 불가리아 구간 건설은 '13년에 시작될 예정이며 불가리아를 지나서 흑해를 관통하여 유럽으로 연결되며 연간 63십억m³의 천연가스를 수송할 수 있음. 본 구간은 우크라이나를 우회함.
 - 11월 13일, Gazprom의 Alexei Miller 사장은 Gazprom이 '09년 13십억 m³의 천연가스를 불가리아를 통하여 그리스, 터키, 마케도니아에 수송하였다고 발표함. 동 천연가스 수송은 구소련 당시 건설된 가스관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본 가스관은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를 통과함.
- 불가리아는 오스트리아 에너지 기업인 OMV AG가 주도하는 Nabucco 가스관 사업도 지지함. Nabucco 가스관은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카스피해와 중동지역에서 터키를 거쳐 오스트리아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임.
 - EU 집행위의 에너지 담당 대변인은 천연가스 공급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Nabucco는 중요성이 크며, 같은 맥락에서 South Stream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언급함. 그러나 South Stream의 경우 Nabucco와 비교하여 천연가스 공급원이 다양하지 않다고 언급함.

(Bloomberg, 2010.11.15)

□ Gazprom, 쿠바 해상 유전개발 참여

- Gazprom은 쿠바 해상에서 원유 시추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임.



- 쿠바의 현재 원유생산량은 미미하지만 쿠바의 북부 해양에는 원유매장량이 풍부할 것으로 보여 쿠바의 경제를 회생시키고 베네수엘라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미 6개 이상의 기업이 동 지역에서의 원유생산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음.
- Gazprom의 석유사업부인 Gazprom Neft는 말레이시아 국영 Petronas로부터 4개의 탐사광구에 대한 지분 30%를 확보하였음.
 - 양사간의 협정을 통하여 Gazprom은 해상시추시설의 운영권도 가지게 됨. 러시아 석유기업들은 시베리아 내륙에서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해상 시추활동에 경험이 부족하여 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노력해 왔음.
 - Gazprom은 Petronas가 쿠바정부와 '07년에 체결한 탐사계약에 대한 지분확보를 통해 본 사업에 참여하며, '11년에 시추를 시작하기로 결정함.
 - 탐사활동을 통하여 자원이 발견된다면 Gazprom이 소유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광구에 대한 임대권은 원유에 대하여 '37년까지, 천연가스에 대하여는 '42년까지 연장될 예정임.
 - Gazprom 외에도 노르웨이, 인도, 베네수엘라, 베트남, 브라질 기업들이 쿠바에서 탐사를 위하여 임대권을 확보함.

(New York Times, 2010.11.15)

□ 러시아-인도-중국, 에너지안보 협력에 합의

- 러시아, 인도, 중국 등 3개국 외무장관들은 11월 15일 중국 우한(武漢)市에서 회담을 개최하고, 에너지안보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함.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에너지안보분야가 3국 협력의 새로운 방향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3개국이 서로 전략적인 파트너임을 강조함.
 - 또한 3개국의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핵 문제 6자 회담의 조기 재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며, 아프가니스탄의 치안 유지와 마약



필수 근절을 위한 국제 지원을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냄.

(The Voice of Russia, 2010.11.15)

□ 러시아-불가리아, 원자력 발전소 건설비용에 의견 불일치

- 러시아와 불가리아는 2천MW급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비용을 두고 의견이 충돌하고 있음.
 - 러시아 원자력기업인 Rosatom은 '05년 불가리아에 4십억 유로(\$5.45십억)의 예상비용을 토대로 원자로 2기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설이 지연됨에 따라 건설비용을 6.3십억 유로(\$8.5십억)로 인상시켰다고 불가리아의 에너지 장관 Traicho Traikov이 11월 15일 발표함.
 - Traikov 장관은 인상된 비용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불가리아 측의 예상 건설비용은 5십억 유로(\$6.7십억)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언급함.
 - 푸틴 총리는 11월 13일 불가리아 방문당시 Rosatom이 정확한 예상비용을 제시하였다고 언급함.
- 16개월 전 집권을 시작한 Boiko Borissov 불가리아 총리 정부가 당시 건설 사업자인 독일의 RWE AG에 자금지불을 거절하면서 동 발전소의 건설이 중단되었음.
 - '05년 Rosatom은 Areva, Siemens와 함께 발전소 건설 협력업체로 지정되어 사업에 참여하였음.
 - 불가리아 정부는 11월 15일 컨설팅 기업을 선정하여 인근 인프라 건설 비용, 이자비용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용에 대한 견적을 시작하겠다고 밝힘.

(Bloomberg, 2010.11.15)

□ Gazprom 마케팅 사업부, 사업 확장으로 고용 확대

- Gazprom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및 상품 거래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런던에서 최대 600명의 직원을 신규 고용할 것으로 보임.
 - Gazprom Marketing and Trading (GM&T) 사업부는 런던 남부에 위치



한 사업장에서 현재 300명의 직원을 고용하였으며 '11년 런던 중심부에 위치한 신규 사업장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임. 신규 사업장은 최대 900명의 직원을 수용할 수 있음.

- Gazprom Marketing & Trading 사업부는 10년 전 영국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영국, 유럽, 극동, 북미 지역에 11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세계적인 Gazprom 에너지 거래사업의 중심으로 성장함.
- GM&T의 사업 확장은 세계 천연가스, 전력, 석유 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에너지 거래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GM&T은 지난 3월 싱가포르에 직원 20명을 보유한 지사를 설립하였고 미국 휴스턴 지사도 확장하였음. 또한 베를린과 파리에도 지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프랑스 천연가스 시장 자유화에 따라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중임.
- 그러나 GM&T 최대 사업규모를 자랑하는 본부는 영국에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임.
- GM&T은 Manchester에 100명 규모의 사업장이 있으며 본 사업장을 통해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의 중소기업에 천연가스와 전력을 공급하고 있음.
- GM&T의 대규모 신규 고용 결정은 10년전 3명의 직원으로 사업을 시작한 GM&T의 변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 GM&T은 영국 시장에 진출한 소규모 기업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9십억 파운드(\$14십억)의 매출을 자랑하는 국제적인 상품 거래기업으로 성장함.

(Financial Times, 2010.11.14)

□ 영국, 풍력 발전소와 복합가스화력발전소(CCGT) 승인

- 영국은 에너지 안보를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전소 두 개에 대한 계획을 발표함.
- 첫 번째 프로젝트로 Northumberland 근처 Ray Estate에 56MW의 전력



을 생산하는 풍력 발전소에 대한 승인을 발표함.

- 풍력 발전소는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기여함. 이 풍력 발전소는 Northumberland 지방 총 가구수의 1/4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두 번째 프로젝트로 Lincolnshire 지방에 900MW의 복합가스화력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함.
- 영국 발전 시설의 약 1/4이 '18년 폐쇄되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 확보가 필요하며, 다양한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상황임.
- 새로운 풍력 발전소와 복합가스화력발전소의 건설이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됨.

(DECC, 2010.11.11)

□ BP, 브라질 바이오연료 산업 투자에 관심

- BP는 브라질 사탕수수·에탄올 그룹 Cerradinho의 지분 50%를 \$466백만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하였음.
- 브라질 일간지 O Estado de S.Paulo는 Cerradinho 이사회가 동 인수 제안에 대한 확답을 금주 내에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
- 만약 Cerradinho가 BP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Bunge, Cosan, Tereos, Noble, Louis Dreyfus와 같은 다른 회사들과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음.
- '09년 4월 BP는 브라질 중부 Goias州에 제조공장이 있는 Tropical Bioenergia S.A.의 지분 50%를 인수한 바 있음. 따라서 BP의 이번 투자가 성사될 경우 브라질 바이오연료 산업에 대한 두 번째 투자사업이 될 전망이다.
- 지난 10여 년간 브라질 바이오연료 산업을 운영해온 Cerradinho는 현 시점에 약 10백만 톤의 사탕수수를 가공할 수 있는 3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음.



- BP는 이달 초 바이오연료 산업 투자에 있어서 브라질의 사탕수수 에탄올 생산업체와 미국의 Energy Grasses 에탄올 생산업체에 우선 투자하고, 다른 국가의 투자는 잠시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Reuters, 2010.11.15)

□ BP,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로 인해 가스전 폐쇄

- 영국 북해에 위치한 Rhum 가스전이 EU의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폐쇄됨.
 - 이 가스전의 50% 지분을 이란 석유회사인 Naftiran Intertrade Company의 자회사 IOC UK Ltd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됨.
 - BP 측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영국 정부로부터 적절한 해명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Rhum 가스전은 스코틀랜드 북동쪽 해안 400 킬로미터에 걸쳐 있음.
- '10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이 가스전에서 매일 6백만m³/d의 가스를 생산했음.
- EU는 지난 달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압력을 가하기 위해 석유 산업을 목표로 하는 제재조치를 가했음.
 - 이란 측은 자국의 핵 프로그램이 단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많은 서구 국가들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음.

(Newswires, 2010.11.11)

□ 덴마크 Vestas, 미국시장 점유율 확대 추진

- 세계 최대의 풍력발전용 터빈 기업인 덴마크의 Vestas는 미국에서 생산을 확대할 계획임.
 - 이는 미국에서 풍력발전소 건설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시장전망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결정임.



- Vestas는 현재 2300명인 직원 수를 4천명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힘. Vestas는 10월 유럽사업장의 직원 3천명을 해고한 바 있음.
- Vestas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풍력발전시장인 미국에서 풍력발전용 터빈 수입을 대체하기 위하여 \$1십억을 투자하여 콜로라도州에 4개의 공장 건설을 추진함.
 - HSBC는 미국 풍력발전시장이 '10년 전년 대비 14% 감소하며 '11년 올해 대비 33% 줄어들 것이라고 10월 발표함.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또한 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발표하였음.
 - Vestas는 올해 콜로라도州의 Brighton, Pueblo, Windsor지역에 공장을 건설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음.
 - 내년엔 건설이 완료되는 공장까지 포함한다면 Vestas는 총 3천MW의 발전을 가능하게 할 터빈을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임.
- 그러나 동 설비용량은 미국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규모로 신규 공장을 최대로 가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평가됨.
 - 그러나 HSBC는 Vestas가 '09년 14.5%이었던 세계 풍력발전시장의 점유율을 '14년까지 16.5%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함.

(Bloomberg, 2010.11.10)



1. 네덜란드, 스마트미터의 도입 가속

□ 요약

- 네덜란드는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배전시스템의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음. 동 국의 전력은 천연가스 화력발전이 1990년대부터 일관되게 6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탄은 1990년의 35%에서 '07년에는 24%까지 감소되었으나, 총 발전량의 1/4을 담당하고 있음.
 - 원자력은 2기가 가동되고 있었으나, 1호기 원자력발전소가 1997년 폐쇄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보르셀라 원자력발전소만 가동 중임.
 - 수력발전은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가 14MW, 나머지는 모두 200kW 이하의 소규모 수력발전 설비임.
 - '07년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990년 대비 7.7배 증가하였음. 바이오매스 발전량은 총 발전량의 6%를 차지함. 풍력발전량은 총 발전량의 3%를 차지함.
- 네덜란드는 현재 천연가스 화력발전 의존도를 감소시켜야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EU 지침에 따라 재생에너지 비율을 증가시켜야 함. 네덜란드 정부는 '20년까지 전력의 37%를 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 충당할 것을 밝히고 있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스마트미터의 보급이 주요 계통 운영 업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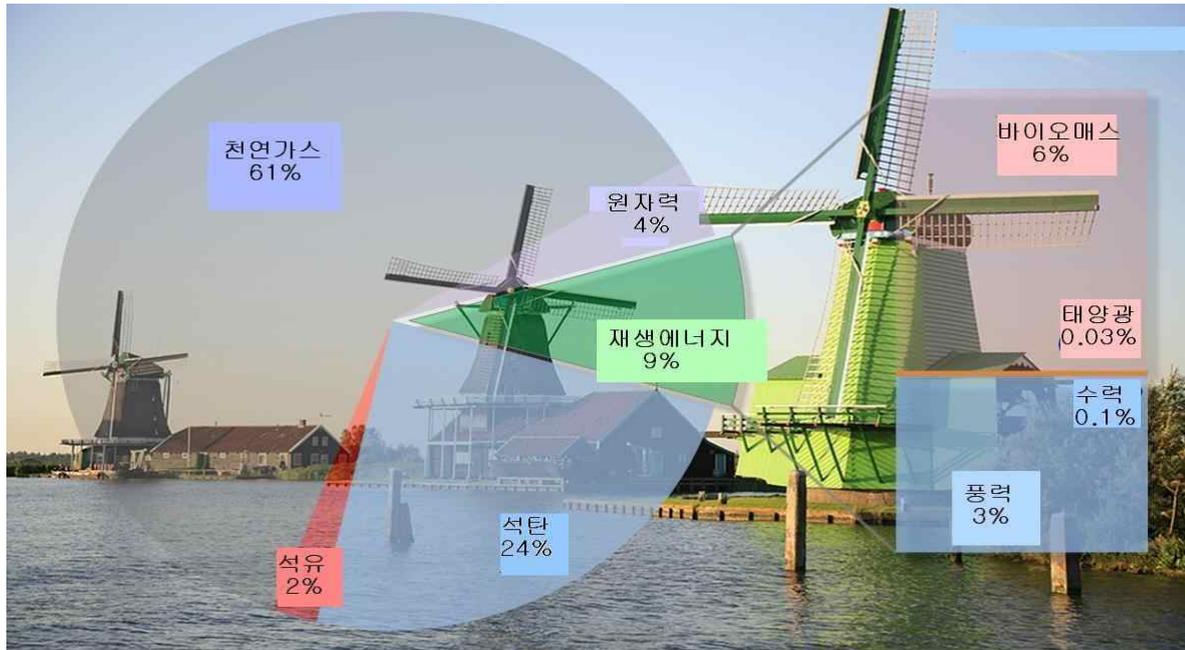
- 네덜란드는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배전시스템의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음.
 - 동 국의 배전시스템 운영기업은 EU의 계획에 따라 '20년까지 수요 가정의 80%에 스마트미터를 도입할 예정임.
- 풍차로 유명한 네덜란드는 청정에너지 국가라는 이미지를 갖기 쉽지만, 사실 EU 중에서도 탄화수소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 동 국은 영국 및 노르웨이와 대등한 천연가스 생산국이며 석유도 소규모 생산하고 있음. '08년의 네덜란드의 1차 에너지 생산량은 석유가 2.58Mtoe(석유 환산 백만톤), 천연가스가 59.89Mtoe로 천연가스와 석유가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93%를 차지하고 있음.
- 에너지 자급률은 76%('07년)로 높은 편인 반면, 천연가스와 석유의 수입도 많음. 정유공장에서 원유를 수입, 국내에서 정제하여 석유제품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가스 시장의 자유화에 따라 수출입 중계 국가 역할을 하고 있음.
- 전력 역시 천연가스 화력발전이 1990년대부터 일관되게 60% 내외를 차지하고 있지만, 천연가스는 가까운 미래에 생산량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
 - 석탄은 1990년의 35%에서 '07년에는 24%까지 감소되었지만, 그래도 총 발전량의 1/4을 담당하고 있음.
 - 원자력은 1969년 운영을 시작한 1호기 원자력발전소(580MW) 및 1973년 운영을 시작한 보르셀라 원자력발전소(510MW)의 2기가 가동되고 있었지만, 1호기 원자력발전소가 1997년에 폐쇄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보르셀라 원자력발전소만 가동 중임. 보르셀라 원자력발전소는 '03년에 폐쇄 예정이었으나, 10년 연장 조치로 인해 폐쇄는 '13년으로 연기됨.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논의되고 있지만, '11년 총선 후 결정될 전망이다.
 - 다른 국가에서 재생에너지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 수력발전이 0.3%로 낮은 네덜란드는 국토의 1/4이 해수면보다 낮고 평탄하기 때문에 대형 수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음.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가 14MW, 나머지는 모두 200kW 이하의 소규모 수력발전 설비임.
 - '07년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990년 대비 7.7배 증가하였음. 바이오매스 발전량은 총 발전량의 6%를 차지함. 풍력발전량은 총 발전량의 3%를 차지함.



네덜란드의 발전원('07년)



- 네덜란드는 현재 천연가스 화력 의존도를 감소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EU 지침에 따라 재생에너지 비율을 증가시켜야 함. 네덜란드 정부는 '20년까지 전력의 37%를 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 충당할 것을 밝히고 있음.
 - 지형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수력발전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풍력발전과 바이오매스발전의 비중을 늘리는 수밖에 없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스마트미터의 보급이 주요 계통 운영 업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
 - 네덜란드에서는 1999년 이후부터 전기 사업자의 재편이 진행된 결과, 현재는 7개 발전회사, 1개사의 독립계통 운영 회사, 8개 배전계통 운영 사업자에 의해 전기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 네덜란드에서는 반 데르 호벤 경제부 장관이 스마트미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17천 유로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하는 엄격한 정책을 '09년에 발표했지만, 개인 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소비자 단체에서 유럽 인권 협약에 저촉한다며 강경하게 반대하여 좌절된 바 있음.

(日本エネルギー経済研究所, 新エネ・省エネFlash 第16号, 2010.11.15)



2. 영국, CO₂ 포집·저장 기술 지원 지속

□ 요약

- CO₂ 포집·저장(CCS)기술은 CO₂를 대기로 배출하기 전에 고농도로 포집한 후 압축 수송하여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술임.
 - CO₂ 저감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음.
-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UK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는 2010년 정부 예산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CO₂ 포집·저장 기술 시범 프로젝트 한 곳과, Green Investment Bank에 각각 10억 파운드를 할당할 예정임.

□ 주요 내용

- 영국 정부는 CO₂ 포집·저장 기술 시범 프로젝트에 10억 파운드의 정부 보조금을 할당할 예정이며, 또 다른 3개의 CO₂ 포집·저장 기술 프로젝트들은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0월 20일 발표했다.
 - 영국 정부는 CO₂ 포집·저장 기술에 대해 공공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합의를 지킬 것이며, 10억 파운드의 기금이 세계 최초의 상업적 규모의 CO₂ 포집·저장 기술 프로젝트에 투자될 것이라고 밝힘.
- 영국 정부는 '11년 봄에 Climate Change Levy에 대한 개혁안으로 CCS Levy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함.
- CCS Levy 도입에 대한 결정이 연기되는 것은 이 기술의 발전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음.
 - 예들 들어, Powerfuel Power사는 남부 Yorkshire 지역 Hatfield 탄갱에 복합화력가스발전소(CCGT)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 부지는 '09년 EU에서 180 백만 파운드의 자금을 받음. 그러나 최종 승인을 얻기 전 CCS Levy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회사 측은 밝힘.
 - 현재 CCS Levy 결정 문제로, 앞으로의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염려되



고 있음. CCS에 대한 지원 약속은 실제적인 자금 지원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

- CCS 프로젝트와는 별개로 영국 정부는 10억 파운드의 자금을 Green Investment Bank에 지원하겠다고 밝힘.
 - 이 자금은 저탄소 기술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사용될 예정임.
- 영국 정부는 다른 에너지 부문에 대한 법안들도 발표함.
 - 해안지역 풍력 발전 프로젝트와 항구 부지의 사회기반시설 정비를 포함하는 저탄소 프로젝트에 200백만 파운드를 지원하기로 함.
 - '11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재생열에너지 지원금(Renewable Heat Incentive)에 860백만 파운드를 할당하기로 함.
 - 소규모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는 연간 70백만 파운드로 하향 조정될 계획임.
-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는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축소 계획을 발표함.
 - '11~'12년에는 110백만 파운드의 예산을 책정할 계획임.
 - '12~'13년에는 100백만 파운드의 예산을 책정할 계획임.
- 최근 정부는 취약계층의 연료결핍에 대한 자료를 발표함.
 - '08년 영국 전체 가구 중 3.75백만 가구가 연료결핍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중 잉글랜드의 연료결핍 가구 수는 2.7백만 가구), 이 수치는 '07년보다 0.5백만 가구가 늘어난 것임.
 - 취약계층 대상은 노년층, 어린이 혹은 장애인이나 장기적인 질병을 가진 계층을 포함하며, 연료결핍 가구는 난방을 위해 수입의 10% 이상을 소비하는 가구를 지칭함.
 - 영국의 연료결핍 가구 수는 1990년대 이후 감소했으나, '03년 이후 치솟는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됨. '08년 영국의 연료결핍 가구 수는 '03~'04년의 두 배가 넘음.

(EU Energy, 2010.11.5)



석유 공급과잉 상황 속에 석유시장 불확실성 증가

□ 요약

- 11월초 국제유가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정책 추진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WTI 선물유가는 배럴당 \$85를 돌파하며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그러나 유럽지역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와 중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은 유가 상승을 제한하며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부각됨.
 - 최근 아일랜드 정부는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하여 정부예산을 감축할 계획을 밝혔으나 예산 감축이 경기 침체를 심화시켜 채무 불이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됨.
 - 중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대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석유 공급과잉 상황 속에서 수급 측면의 지지력이 없는 유가 상승세는 언제라도 반전될 가능성이 있음.

□ 주요 내용

- 국제유가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정책 추진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WTI 선물유가는 배럴당 \$85를 돌파하며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유럽지역 국가들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와 중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상승세는 제한됨.
 - '09년 아일랜드의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11.9%에 달했으며, 올해의 재정적자규모는 GDP 대비 32%로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아일랜드 정부는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향후 4년간 총 150억 유로의 정부예산을 감축할 계획을 밝힘.
 - 그러나 정부예산의 축소로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이 결과 세수가 줄면서 채무상환 불이행 가능성이 커짐.
 - 중국의 10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4.4% 상승했으며 11월에도



물가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중국의 4대 상업은행(공상·건설·농업·중국은행)이 부동산개발업체들에 대한 신규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등 중국 정부는 과열된 경기를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
- 미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는 최근의 유가 상승을 주도한 핵심 요인으로 분석되며, 달러가치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유발과 석유시장으로의 투기자본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됨.
 - 11월 3일 미 연방준비제도는 내년 6월까지 매월 \$750억, 총 \$6천억의 국채를 매입하겠다는 양적완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로부터 2주 후인 17일까지의 기간 동안 유로화 대비 달러가치는 약2.9% 하락함.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1월초 미 석유선물거래(Nymex-WTI) 순매수 계약은 14만4천 건에 달하며 금년 1월의 최고치를 갱신함.
- 그러나 석유 공급과잉 상황 속에서 수급 측면의 지지력이 없는 유가 상승세는 언제라도 반전될 가능성이 있음.
 - 10월 기준 세계 석유수요는 전년 동월대비 2.2백만b/d 증가한 87.8백만 b/d를 기록하였지만 공급은 이보다 큰 폭인 2.5백만b/d 증가하며 88.3백만b/d를 기록함.
- 최근의 유가 상승세는 수급측면의 영향보다는 세계 경기회복 기대 및 금융적 측면의 영향이 훨씬 강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아일랜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및 중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유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그리스와 같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유로화 가치하락(달러가치 상승)으로 유가는 하락할 수 있음.
 - 또한 향후 중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더욱 강한 규제가 시행될 경우, 경기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로 유가는 하락할 수 있음.



최근 세계 석유 수급 밸런스

(단위: 백만b/d)

		2010년				2009년	
		8월	9월	10월	연평균	10월	연평균
수요	OECD	46.6	46.6	46.8	46.0	45.7	45.5
	비OECD	40.9	41.3	41.0	40.8	39.8	39.4
	합계	87.5	87.9	87.8	86.9	85.6	84.8
공급	OPEC	34.8	34.8	35.3	34.6	34.3	33.9
	비OPEC	49.0	49.5	50.5	49.8	49.3	48.7
	Process Gain	2.4	2.5	2.5	2.5	2.3	2.3
	합계	86.2	86.8	88.3	86.9	85.8	84.9

자료: Oil Market Intelligence

- 한편, 중국은 정부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석유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석유시장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 9월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전년 동월대비 35% 증가한 5.69백만b/d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정제시설 투입물량도 8.53백만b/d로 지난 6월의 역대 최고치(8.64백만b/d)에 근접하고 있음.

(Energy Intelligence, Oil Market Intelligence, 2010. 11)